

# 홍천사의 역사와 사상

문 무 왕 \*

- I. 머리말
- II. 홍천사의 역사 및 변화과정
- III. 홍천사의 사상
- IV. 맺음말

## I. 머리말

홍천사는 창건과 동시에 조계종의 본사가 되어 불교의 명맥을 유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왕실과 민간에 남아있는 불교적 염원을 수용하는 장(場)으로서 일정한 위상을 가졌다. 그러나 유불교체(儒佛交替)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佛敎 存廢의 격론(激論)에 휘말리며, 건립된 지 112년 만인 중종 5년(1510) 홍화방의 홍천사는 완전히 소실되어 그 명운을 다하게 된다. 현재 홍천사 鐘 만이 덕수궁에 남아 그 존재를 확인시켜 줄 뿐이다.

기존의 홍천사에 관한 연구는 서울 정도(定都)의 역사적 유래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정릉의 능침사찰로 단편적으로 언급되거나<sup>1)</sup>, 억불정책 하에서 선종도회소의 역할에 한정하여 서술되거나<sup>2)</sup>, 또는 조선 초기 불교 의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거론되는 데 그치고 있다.<sup>3)</sup>

\* 동명대학교 교수

- 1)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1, 서울特別市, 1977;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의 문화재』, 서울특별시, 2003; 김정동, 『고종 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2004; 서울중구문화원, 『정동 역사의 뒤편길』,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2007; 金龍國, 「서울定都 初期의 佛寺創建 : 李太祖의 崇佛生活와 關聯하여」, 『鄉土서울』5,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59; 김동욱, 「홍천사의 연혁」, 『홍천사 실측조사보고서』, 서울특별시, 1988; 윤정, 「태조대 정릉 건설의 정치사적 의미」, 『서울학연구』 37, 서울학연구소, 2009.
- 2) 한우근, 유교정치와 불교, 한우근전집 5, 한우근전집간행위원회편, 2003; 황인규, 高麗末・朝鮮前期 佛敎界와 高僧 研究, 혜안, 2005; 이봉춘, 『조선 개국초의 배불추진과 그 실제』, 한국불교학 15, 한국불교학회, 1990; 崔在穀, 『世宗代 36社의 指定과 機能』, 淸溪史學 14, 韓國精神文化研究

본고에서는 이러한 흥천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흥천사의 시작과 조선불교에서의 위치 및 선종 사찰의 수사찰로서의 모습에서 흥천사의 역사와 사상을 조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흥천사에 관한 사료도 적은 편이며 대체로 조선왕조실록, 승려나 문인의 행장 등에서 그 역사와 사상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흥화방의 흥천사를 이해하는 논문을 기술코자 한다.

현재의 흥천사는 흥화방의 흥천사를 계승하여 능참기능만을 살렸지만 원 흥천사의 사상은 일정 부분 계승되었다고 생각되므로 흥화방의 흥천사의 역사와 사상을 위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 II. 흥천사의 역사 및 변화과정

### 1. 흥천사의 창건

흥천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신덕왕후를 정릉에 모시고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396년에 착공하여 1397년에 170여 칸이나 되는 대가람으로 창건된 절이다.<sup>4)</sup> 흥천사는 조선 초기에 창건된 사찰로 신덕왕후 강씨는 判三司事 允成의 딸로, 태조의 제 2 비였다.<sup>5)</sup> 신덕왕후는 건국의 시초에 태조를 도와 대내외적으로 막중한 소임을 다하였다. 태조가 즉위하기 1년 전에

---

院清溪史學會, 1998; 이정주, 『조선 태종·세종대의 억불정책과 사원건립』, 한국사 학보 6, 고려사학회, 1999; 사문경, 『고려말·조선초 불교기관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3) 김영태, 「朝鮮 太宗朝의 佛事와 后佛」, 『東洋學』 18, 檀國大學校附設東洋學研究所, 1988; 김용조, 『조선전기 국행기양불사연구』, 동국대박사학위논문, 1989; 李英華, 「조선 초기 佛教儀禮의 성격」, 『清溪史學』 10, 韓國精神文化研究院清溪史學會, 1993; 김진영, 『조선 초기의 불교정책』, 延世大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9; 金熙俊,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 『湖西史學』 30, 湖西史學會, 2001; 河正男, 「朝鮮初期 祈雨祭의 性格 變化」, 『靑藍史學』 6, 靑藍史學會, 2001; 柳基貞, 「朝鮮前期 僧政의 整備와 運營」, 『靑藍史學』 5, 靑藍史學會, 2002.

4) 權近, 「貞陵願堂曹溪宗本寺興天寺造成記」, 『陽村集』 卷12.

5) 정릉의 현재 위치는 분명치 않으나 김동욱은 정동 문화방송국이 있는 곳으로 비정된다고 하였고(김동욱, 「흥천사의 내력」, 『흥천사 실측조사보고서』, 서울특별시, 1988, p. 43), 윤정은 영국 대사관과 성공회성당 자리에 있었다고 하였다(윤정, 「태조대 정릉 건설의 정치사적의미」, 2009, p.179). 흥천사의 위치에 관해 박경룡과 윤정은 현재 시의회 의사당 자리에 건립되었다고 하였고(박경룡, 「개화의 거리, 정동이야기」, 『중구문화』 9, 중구문화원, 2005. p. 33 ; 윤정, 앞의 논문, 『서울학연구』 37, 서울학연구소, 2009, p. 179),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는 정동 舊경기여고 자리였다고 하였다(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卷1, 서울特別市, 1977, p. 707).

제 1 비였던 神懿 王后 韓氏가 죽고 태조 즉위 원년에는 강씨가 顯妃로 있었다. 이를 인정하여 건국에 공이 가장 많았던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芳遠을 제치고 그의 아들 芳碩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흥천사는 태조 6년(1397) 태조의 繼妃였던 神德王后 능인 貞陵의 陵寢寺刹로서 조성되었다. 흥천사의 창건 경위에 대해서는 權近의 「貞陵願堂 曹溪宗本寺 興天寺 造成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흥무 병자년(태조 5년) 가을 8월 무술일에, 우리 小君顯妃康氏가 세상을 떠났다. 상이 마음속 깊이 슬퍼하여 有司에게 명하여 尊號를 추후로 올려 神德王太后)라 하고 장지를 택하여 왕궁 서남쪽 수리 되는 가까운 곳에 얻으니, 언덕과 봉우리가 감싸고 풍수가 길하게 응하였다. 명년 丁丑年 正月 甲寅日에 정릉에 장사지내고, 묘역 동쪽에 절을 열어 興天이라 이름하였으니,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다.<sup>6)</sup>

즉, 태조가 신덕왕후를 잃고 슬퍼하며 정릉에 장사지내고, 신덕왕후 강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흥천사를 창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조의 康妃에 대한 死後의 禮는 더할 수 없이 지극하여 ‘도성 안에 陵과 寺祖를 쓰지 않는다.’는 舊例의 법을 어기고 왕궁에서 서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서부 聚賢坊 북쪽 언덕에 능을 쓰고 더하여 능침사찰로서 흥천사를 건립하였다.

개국 위중한 시기에 충성스러운 신하와도 같았던 신덕왕후를 잃고, 태조는 정릉의 경쇠 소리를 들은 뒤에야 수라를 들 정도였다.<sup>7)</sup> 강비가 세상을 떠난 3일 후 趙浚 과 金士衡 등 공신 1인이 돌아가며 정릉을 3년 동안 지키게 하고 영구히 전례가 되게 하자고 청하니, 태조도 이를 받아들여 첫 번째로 安平君 李舒에게 수릉의 책임을 맡겼다.<sup>8)</sup>

흥천사의 공역은 태조 6년(1397)정월 정릉에 장사지낸 이후에 시작한 것으로 보이나, 이미 태조 5년 12월 국왕이 흥천사에 나가 工匠들에게 음식을 주었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6) 權近, 『貞陵願堂曹溪宗本寺興天寺造成記』, 陽村集 卷12. “惟洪武丙子秋八月戊戌 我小君顯妃康氏堤上心傷悼 命有司追論尊號曰 神德王太后 卜葬得王宮之西南數里之近 岡巒朝抱 風水應吉越明年丁丑正月甲寅 葬于貞陵 又置榮域之東 創寺曰興天 追冥福也”

7) 『林下筆記』 卷14, 文獻指掌編, 之後의 祀廟

8) 『太祖實錄』 卷10, 太祖 5年 8月 16日(辛丑). “請以功臣一人 守陵三年 自此以後 永爲恒式 … 上從之 乃令功臣安平君李舒守陵”

## 2. 사리전의 조성

태조는 흥천사에 啓聖殿을 설치하여 아버지인 桓祖의 眞影을 奉安하였는데 이는 왕실의 원찰이라는 확실한 지위를 부여하여 흥천사의 위상을 높이고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사리전은 태조의 지극한 정성과 치밀한 의도 하에 조성되었다. 하지만 역불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탓인지 사리전의 규모나 구조·모양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이는 기록을 찾기 힘들다. 단지 태조 7년(1398) 5월에 국왕이 사리전 건축을 명하며 각영의 大匠과 대부로 자원하는 사람 50명을 모집하여 식량을 주어 부역에 나오게 하였다고 한다.<sup>9)</sup> 정종 1년(1399) 10월에 사리전이 완공되기까지 1년 반의 공역기간을 고려해 본다면 대단히 웅장한 규모의 사리전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또 세종 17년(1435) 5월 국왕이 흥천사의 탐전 수리 일로 權探에게 勸文을 짓게 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사리전의 구조와 모양이 언급되어있다. 사리전은 平面으로 보면 八角의 목조건물로, 석탑을 전각 안에 두었던 것인데 사리전이 무너지면 석탑도 따라 무너질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세종 1년(1419) 9월 사신 黃儼이 흥천사 사리전에 들어가서 석탑에 올라갔으므로 사리전 안에 석탑이 있었던 것이 더욱 확실하다. 사리전 안의 석탑에 올라가 내부를 살펴볼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사리전 안에는 분향하고 부처에게 배례할 만큼의 공간이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흥천사에 3층탑이었다고 하니, 석탑은 3층인 것으로 짐작되나, 세종 20년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사리각은 5층으로 기록되었다. 또 사리전 중창 후 경찬회를 베풀며 지은 「說禪文」에 殿直 南秀文이 3층의 예전 모습을 복구했다고 하고, 권채의 권문 중에 ‘八面四層의 殿堂’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사리전이 정확히 몇 층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사리전에 대한 기록도 정확하게 전하는 사료가 없을 뿐더러 세종대의 사리전 개축 전에도 여러 차례 수리하였으며 급기야 중종 대에 화재로 소실되어 전하지 않으니, 사리전이 세워졌을 때의 구체적인 모습은 더욱 짐작하기 어렵다.

흥천사 공역은 金師幸이 주관하였고, 사리전은 金湊가 감독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고려 말·조선 초에 왕실 공역을 주로 담당했던 명인들이다. 김주의 능숙한 솜씨로 조성된 사리탑은 규모가 크고 구조도 특이하여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로 조영되었으며, 도성 안의 진귀한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10)</sup> 그리하여 조정에 오는 이웃 나라 使客들의 관람

9) 『太祖實錄』 卷14, 太祖 7年 5月 1日(丁未). “上如興天寺 命營舍利殿三層于寺北 慕各領隊長隊副自願者五十人 給糧吐役”

코스카 되었다. 이는 일본 승려 知融이 사리각을 유람한 후, 사리전은 조선의 제일 좋은 경치<sup>11)</sup>라고 한 데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태조 7년(1398) 5월에 흥천사의 監主 尙聰이 글을 올려 도성 안에 수선의 본사로 창건된 흥천사에 서울과 지방의 유명한 사찰을 소속시켜 흥천사가 규찰하도록 청하였다.<sup>12)</sup> 이는 수선의 본사로 창건된 흥천사가 이 명분에 부합되도록 실제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태조는 이를 수락하였다.

사리전의 건립은 단순히 사찰 안의 전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선의 본사라는 흥천사의 지위에 조응하는 것으로서 흥천사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사리전은 태조가 심혈을 기울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건립한 흥천사의 핵심 전각이었다.

이렇게 태조가 사리전 건축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한 것은 흥천사가 시각적으로 정릉의 존재를 보여 주는 건물로 신덕왕후의 사후 세자의 위상을 계속 확장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으며, 태조가 건국의 시초에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고, 태조의 신불성향이 佛事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태조가 흥천사를 세우고 사리전 조영에 공을 들인 것은 한양 도성이 새 왕조의 창업공간이고 경복궁은 그 法宮이었으므로 그곳에서 직접 바라보이는 곳에 흥천사를 건설함으로써 현실에서 여전히 신앙이 되고 있었던 불교를 인정하고 신앙조 초기에 불교 제 세력을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sup>13)</sup>

### 3. 흥천사의 선종관리 사찰로서의 역할

흥천사는 태종 9년(1409) 2월 정릉이 도성 밖 사을한(沙乙閑)에 옮기게 되었음에도<sup>14)</sup> 그대로 도성에 남게 되었다. 또한, 흥천사는 태종·세종대의 강력한 억불정책 속에서도 불교계를 일원화하여 통제하는 기관으로 사격(寺格)을 유지하였다.

세종 6년(1424) 4월 불교종파를 선교양종으로 통합하여 각기 18 곳만 남겨놓고 도회소(都會

10) 『世宗實錄』 卷68, 世宗 17年 5月 20日(辛卯). “制度宏壯 … 崔魏峻峙 自東國以來所未曾有” 강병희, 「興天寺 사리전과 石塔에 관한 연구」, 『講座美術史』 19(사. 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2.12)

11) 『世宗實錄』 卷89, 世宗 22年 5月 20日(辛酉). “舍利殿寺 連是朝鮮第一勝概也”

12) 『太祖實錄』 卷14, 太祖 7年 5月 13日(己未). “於都城之內 創立佛寺 賜號興天 修禪本社 … 筑稱本社 則其中外名到 宜徹松廣之制 皆爲本社之屬 互相料察 則其於作法祝植 難欲陵夷 不可得”

13) 백순천, 『朝鮮初期 興天寺의 造營과 役割』, 한국고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0.

14) 『太宗實錄』, 太宗 9年 2月 23日, “遷葬神德王后康氏于沙乙閑之薦”

所)를 두었고<sup>15)</sup> 승려의 정원과 급여를 지급할 땅의 규모도 제한하였다. 도회소가 설치될 무렵 선교양종의 규모는 선종이 토지 4,250 결에 승려 1,970 명이었으며, 교종은 토지 3,700 결에 승려 숫자가 1,800 명이였다. 따라서 선종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홍천사에 선종도회소가 설치된 이유는 도성 안에 세워진 사찰이었을 것이다. 홍천사가 선종도회소로 지정된 것은 기존의 사찰을 행정기관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정책으로 사찰로서의 업무와 함께 불교기관으로서의 성격까지 겸한 것이었다.<sup>16)</sup> 홍천사는 승과시험의 주관<sup>17)</sup>, 주지의 천거, 관할사찰의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sup>18)</sup>

승과제도는 각 종파별로 선시(選試)를 행했었다. 선교양종으로 통합되는 세종 6년(1424) 이후로는 선·교 양종에 한하여 실시되고 신종 승과는 홍천사가 화재가 난 연산군 10년(1504)까지 홍천사에서 행해지게 된다. 홍천사로 내시별감(內侍別監)을 파견하여 감독하게 하였는데, 성종 대에는 예조(禮曹) 낭청(郎廳)으로 바뀌어 판사(判事)·장무(掌務)·전법(傳法) 3명과 학식이 높은 승려 10명이 증의로서 배석한 가운데 시험을 치렀다.<sup>19)</sup> 『전등록(傳燈錄)』과 『선문염송(禪門拈頌)』으로 시험을 보게 하여<sup>20)</sup> 30명을 선발하였고 여기에서 합격하면 대선(大選)이라는 승계(僧階)를 받게 된다.

『慵齋叢話(용제총화)』의 내용에 기초하여 승계를 정리해 보면 선종은 대선(승선 합격자) — 중덕(中德) — 선사(禪師) — 대선사(大禪師) — 도대선사(都大禪師; 판사에 임명된 자)로 되어있었

15) 『世宗實錄』 卷24, 世宗 6年 4月 5日(庚戌), “澤中外堪寓僧徒之處 量宜置三十六寺 分隸兩宗 … 以京中興天寺爲禪宗都會所 興德寺爲教宗都會所”

16)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 ① 손신영, 「홍천사와 화계사의 건축장인과 후원자」, 『講座美術史』 26-1(사. 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2.12)
- ② 손신영, 「조선후기 홍천사의 연혁과 시주」, 『講座美術史』 49(사. 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7.12)
- ③ 문명대, 「홍천사 42수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의 도상특징과 편년연구」, 『講座美術史』 49(사. 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7.12)
- ④ 사문경, 「세종대 선교양종도회소의 설치와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17, 조선시대사학회, 2001. pp. 9~10.

17) 류기정, 「朝鮮時代 僧政의 整備와 運營」, 『청담사학』 5, 청담사학회, 2002, p.31.

18) 『經國大典』 3, 禮曹

19)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卷下, 博英社, 1984, p. 942.

20) 成信 『情齋叢話』 卷9. “禪宗講傳燈拍頌 教宗講華嚴經”

『太祖實錄』 卷14, 太祖 7年 5月 13日(己未). 홍천사의 監主 尙聽이 禪宗은 『傳燈錄』의 拈頌을, 教宗은 經律의 論疏를 節을 따라 강습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데, 태조 이래의 수행내용이 그대로 考試科目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종에서는 『華嚴經』과 『十地論』으로 시험하였다.

고<sup>21)</sup>, 교종은 대선(승선 합격자)—중덕(中德)—대덕(大德)—대사(大師)—도대사(都大師; 판사에 임명된 자)<sup>22)</sup> 로 되어있다. 여기서 判事는 해당종파의 책임자이다. 세종 1년부터 각 종의 판사를 서울 안 도회소의 주지로만 임명하도록 하여 각종의 판사는 주지직을 겸임하였으며, 세종 6년 이후 양종의 판사로 축소되었다.<sup>23)</sup> 이것은 대선사에 오른 사람 승과시험을 위한 장소라는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홍천사와 신종도회소 관련 승려에게서도 알 수 있듯이 교종 본산의 주지까지 선종승들이 장악하였다는 것은 선종이 교종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sup>24)</sup>

판사와 장무는 일반 직명과 동일하여 홍천사가 행정기관임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특히 판사는 해당종파의 책임자이며 從一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직급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불교기관으로서 홍천사의 위상을 잘 알려주고 있다.

선종도회소였던 홍천사에서는 다른 사찰의 주지를 추천·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거나 교대해야 할 주지가 발생할 경우 중덕에 오른 자를 주지로 추천하여 임명하였는데, 삼망(三望)을 갖추어 예조에 올리면 예조는 이조(吏曹)에 옮겨 국왕에게 낙점을 받게 하고 30개월이 되면 교체하였다.<sup>25)</sup>

국왕에 의해 임명된 주지는 사찰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사원재산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sup>26)</sup>

이러한 전개 양상을 볼 때 선종도회소로서의 홍천사의 위상을 볼 수 있다.

#### 4. 왕실불사의 주관

홍천사는 왕궁 옆에 설치되었고, 신덕왕후의 능침사찰로 조성되었다. 능침사찰은 喪·祭禮를 시행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진 만큼 홍천사에서 왕실을 위한 불사가 행해졌으리라는 것은 너

21) 成倪『情齋最話』卷9. “入格者謂之大禪 禪宗則自大禪升爲中德 自中德升爲禪師 自禪師升爲”

22) 『世宗實錄』卷4, 世宗 1年 5月 19日(癸亥). “自今各々許差外方住持 只許差京中都會所住持”

23) 황인규, 『조선전기 선교양종의 本山과 判事』, 『한국선학』 12, 한국선학회, 2005. pp. 147-166).

24) 황인규는 ‘禪教雄分道不分 教宗還是合禪門’, (『方興天住持一菴 築敗 書懷星似』, 『三灘先生集』 7, 詩) 글귀나 ‘今判教宗事順善堂雲變 禪林領抽也’, (徐居正, 『鷄龍山進葉菴重新記』, 『四佳文集』 2, 記)라는 글귀를 통해 선종이 교종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황인규, 앞의 논문, 2005, p. 180).

25) 『世宗實錄』卷5, 世宗 1年 9月 4日(丙午). “咸興平壤土官及各宗僧徒除授 以寅申巳亥年 定爲恒式”

26) 『太宗實錄』卷21, 太宗 11年 3月 30日(庚寅)

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태조가 생존해 있었던 정종대는 물론이고 강력한 억불정책을 추진했던 태종·세종 그리고 문종에 이르기까지 흥천사는 왕실의 꾸준한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왕실의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

흥천사에서는 총 23 회의 불사가 설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역대 王別로 살펴보면 태조 대에는 亡者를 추천하기 위한 孟蘭盆齋가 행해졌다. 조상과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고려에서 행해지던 佛教習俗儀禮로 점차 각 사찰에서 죽은 이를 위해 재를 지내는 행사로 널리 시행되었다.

태조 7년(1398) 8월 신덕왕후의 大祥을 맞이하여 신덕왕후를 濟度하기 위한 鷹會와 大祥齋가 설행되었다. 神德王后喪은 조선건국 이후 최초의 國喪으로 태조 6년 1월 신덕왕후를 정릉에 장사지내고, 그 해 8월 강비의 一週가 되어 흥천사의 낙성식과 함께 小祥 制를 설행하였다.

왕후의 친회에는 국왕이 친히 흥천사에 행차하여 관람하였다.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한 死者儀禮는 태종 10년(1410)까지 흥천사에서 설행되었다.

정종 1년(1399) 8월에도 신덕왕후의 기일재가 행해졌는데 이후로도 꾸준히 흥천사에서 신덕왕후의 기신재가 거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흥천사에서의 신덕왕후 관련 불사는 태조대에 2회, 정종대에 2회, 태종대에 1회만 보이고 있다. 이는 기신재에 관한 禮制가 定例化, 慣例化되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일상적인 기록이 되어버린 기신재의 기록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건국의 공이 많았던 태종을 제치고 芳碩을 세자로 삼도록 조정하였던 신덕왕후에 대한 감정도 개입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종 1년 10월 절의 북쪽에 사리전을 완공하자 태조는 흥천사 사리전의 낙성식을 겸하여 先王, 先妃와 신덕왕후의 은덕을 기리고 戊寅靖社로 희생된 두 아들과 사위, 그리고 건국과정에서 죽은 前王朝의 王氏들을 위하여 명복을 기원하는 水陸齋를 거행하였다.<sup>27)</sup> 이는 여러 死者들을 鷹福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수륙재를 설행한 경우로, 태조는 역성혁명으로 조신왕조를 개창한 만큼 建國의 始初에 祖宗의 冥福을 빌며 민심을 포섭·융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륙재를 설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 2년(1402) 4월 태조가 흥천사에서 桓王의 기신법회를 거행하였는데 국왕이 內官 李龍進을 보내어 승려들에게 포 1백 50 필을 시주하였다.

태종 8년 5월 태조가 堯하니, 7월에 흥천사에서 추천불사로서 원각법석을 베풀었다.

태조의 崩御이후 貞陵이 도성 밖으로 이장되고, 태종 11년부터는 신덕왕후 대신에 神懿王后의 기신재를 흥천사에서 지내게 된다. 태종 11년 5월 사리탑을 수리하고 법회를 베풀었다. 마침 辰이 되어 태조와 신의왕후를 위하여 법석을 베풀었는데, 靑原君 沈綜을 불러 향을 주고 흥천

27) 『定宗實錄』 卷2, 定宗 1年 10月 19日(乙卯). “太上王幸新都 爲興天寺之舍利殿落成也 且設水陸齋以鷹先王先妃若顯批諸亡子塔及前朝王氏”



사에서 승려 50 명을 불러 모아 『金字法華經』을 독송케 하였다. 태종 16 년에는 아예 藏義寺에서 설행하였던 신의왕후 기신재를 藏義洞門의 폐쇄로 쌀 운반이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흥천사·興福寺에서 베푸는 것을 恒式으로 삼았다.<sup>28)</sup> 이는 기신재 설행이 정기적이므로 교통이 편리하고 왕실과 관련이 깊었던 흥천사에서 설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흥천사에서 행해진 신의왕후 기신재에 관한 기록은 태종 16 년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

세종대에 거행된 왕실불사는 다른 국왕들에 비해 11 회로 월등히 많았다. 세종 1 년(1419) 9 월 정종喪을 당하여 10 월에 추천불사로 七七齋 중에 四齋를 행하였고, 화엄법석을 설행하며 知敦寧府事 韓長壽로 하여금 향과 疏文을 받들게 하였다.

세종 2 년에는 太宗妃 元敬王后를 위해 四齋를 거행하였다. 上王이 된 태종은 세종 2 년 8 월 원경왕후 七七齋의 상황을 견해 듣고 兵曹에 전지하여 추천재와 수록재를 합동으로 올리게 하고, 禮官에게 명하여 國家, 大夫, 士, 庶人의 수록재 설행의 等品과 참여 인원수를 정하였다.

이후로 흥천사에서는 死者儀禮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세종 2 년 10 월 국가에서 시행하는 追鷹 七齋를 전통적인 수록재 설행의례로 합하여 행하고 先王과 先后의 기신재도 山水淨處에서 수록재로 거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sup>29)</sup> 또한, 세종 3 년 1 월 예조에서 先王·先后의 기신재를 藏義寺와 津寬寺에서 설행하도록 주청하여 국왕이 윤허함으로써 이후로는 흥천사에서 더는 왕실과 관련한 死者儀禮가 행해지지 않는다.

흥천사는 왕실불교를 대행했던 사찰이었다. 세종대에 유난히 藥師·觀音精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sup>30)</sup> 이는 上王인 태종과 왕비 昭憲王后, 세자와 말년의 국왕의 治病을 기도하기 위한 것으로 온 정성을 다해 불사를 행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였다. 세종 4 년 8 월 恭妃의 병이 낫지 아니하여 同知敦寧府事 安壽山을 보내어 약사를 행하는데 흥천사에서 정근하게 하고, 右議政 鄭耀은 昭格殿에 開祭를 올렸다.

세종 31 년 10 월 세자의 등창으로 臨濕大君 李肉·都承旨 李思哲에게 명하여 관음정근을 흥천사에서 베풀게 하였는데 세자의 병이 낫게 되니, 왕이 기뻐하며 보공재를 올렸다.

세종 32 년 1 월 국왕이 병세가 심하여 도승지 이사철을 흥천사에 보내어 관음정근을 베풀게 하였으며, 여러 신하를 나누어 보내어 畿內의 명산대천과 神祠·佛宇에 기도하였다.

또 구병불사에 공작재가 설행되기도 하였다. 공작재는 災映을 없애고 病魔를 덜어 오래 살도

28) 『太宗實錄』 卷32, 太宗 16年 7月 22日(辛亥). “命設思晟 齋於興天 興福寺 上曰: 前此行先后 邑晟齋於藏義寺 然今閉藏義洞門 輸米及往來有聲 可於城內二寺 互相設行 以爲恒式 “

29) 『世宗實錄』 卷10, 世宗 2年 10月 1日(丙申). “今國行追鷹七齋 筑皆以水陵詳定 自今先王先后 邑晟齋 亦於山水淨處 以水陵行之”

30) 『世宗實錄』 卷16, 世宗 4年 5月 4日(庚申). “遣右議政鄭掃于興天寺 … 設藥師精勤”

록 비는 의식으로 불교에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원귀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문종 2년(1452)에도 홍천사에서 공작제가 거행되었으나 이후로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세종 32년(1450) 윤 1월 국왕의 병세가 좋아지자 좌참찬 정분을 불당에, 도승지 이사철을 홍천사에 보내어 報供齋를 베풀게 하였다. 이렇게 불사 후에 병에 차도가 보이면 다시 보공재를 베풀거나 불사에 참여한 승려들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 세종대에는 국왕의 誕生日에 無病長壽를 빌기 위한 祝壽齋가 세종 3년과 6년에 2차례 행해졌으며, 역시 이후로는 全無하다.

문종 2년 3월 국왕의 異腹同生인 密城君 李探의 병이 위급하므로 安平大君 李瑋에게 명하여 승려들을 모아 홍천사에서 기도하게 하였다. 병이 나았으므로, 승려들에게 면포를 차등있게 하사하고는, 침의 妻兄 두 사람에게 관직을 除授하도록 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홍천사에서는 내세 영역의 우란분재, 천회, 대상제, 기일재, 수륙재, 기신법회, 원각법석, 사재 등의 喪·祭禮와 生日의 추복행사가 설행되었다.

또 왕실 불사가 설행됨으로써 홍천사에 제공되었던 물자와 인정은 홍천사의 위상을 높이고 홍천사의 재정기반이 되어 사찰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조신의 왕실은 유신들의 억불정책을 약화 시키거나 일정 부분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으며 때로는 불교의 적극적인 후원자이기도 하였다.

왕실에 의해 행해지는 불사는 결과적으로는 불교를 존속·회복시키는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도성 안 홍천사에서 설행되는 왕실불사는 불교부흥을 우려하는 유신들에게는 경계·질타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반사찰이면서 관청이었던 홍천사에서 설행되는 왕실불사는 행정기관에서 왕실불사를 행하는 의미도 가지는 것이었기에 유불교체가 가속화되던 문종대 이후 홍천사에서 행해지던 왕실을 위한 불사는 현저하게 위축·제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홍천사는 연산조에 이르러 사찰폐지의 수순을 밟는다. 국왕은 홍천사가 운영된 지 오래되어 갑자기 혁파하기 어렵다거나,<sup>31)</sup> 대비께서 명하였을 것이니 나는 모른다고 핑계하며 답을 피하였다. 또 대비가 행하는 불사를 삼가도록 아무리 간청하여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대비의 불심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대비의 호불로 불교가 다시 일어남을 경계하는 유신들의 소가 계속되었음에도 방관적이었던 국왕은 연산군 8년(1502) 7월에 예조의 낭청이 사리탑 문의 개폐에 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sup>32)</sup> 홍천사를 국가 관리 밖으로 방치하여 훼손이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제

31) 『燕山君日記』 卷4, 燕山君 1年 4月 28日(辛 巳). “其來已久 勢難速革”

32) 『燕山君日記』 卷45, 燕山君 8年 7月 24日(甲 午). “禮曹郎廳主開閉 則國家似有崇奉之意 今 後令

흥천사는 도성 안에서 제거돼야 할 핵심 사찰로 지목되었고, 이후 흥천사의 存立基盤은 점차 취약해 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연산군 10년 12월 흥천사에 불이 났다. 1년 전에 흥덕사가 화재로 소실되고, 흥천사마저 소실됨으로써 태조에 의해 도성 안에 세워져 도회소로 기능하던 양종이 모두 사라졌다.<sup>33)</sup> 역불의 분위기를 반영한 듯, 불교기관이었던 흥천사가 화재로 소실되었는데도 사후 원인규명이나 조치 등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으니, 흥천사 소실을 방관내지 조장하였다는 설이 분분하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 III. 흥천사의 사상

태조 칠년에 삼층 사리전을 북사(北寺)에 조영할 때, 흥천사주(興天寺主) 상충(尙聰)이 당시 불교도가 명리쟁탈의 여폐(餘弊)를 받아서 다분히 수선강경(修禪講經)을 일삼지 않음을 격분하고, 또는 선종은 보조국사의 유제(遺制)에 따라 엄숙히 수선(修禪)할 것을 상소하여 가납(嘉納)되었다.<sup>34)</sup> 지눌의 사상은 신종 3년(1200년, 43세) 다시 지눌은 송광산(松廣山) 길상사(吉祥寺)로 이석(移錫)하였는데, 팔공산 거조사에 있던 정혜사를 이곳으로 옮기고 길상사를 수선사(修禪社)라 개명한 다음 본격적인 결사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210년 지눌이 이곳 수선사에서 입적할 때까지 11년 동안 대중을 접화(接化)하니 이때 사망에서 운수납자(雲水納子)가 폭주하였고 명리를 버리고 입사하는 왕공사서(王公士庶)가 또한 수백 인에 달했다.<sup>35)</sup> 이러한 사상은 조계종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말(麗末)에 지공화상(指空和尚)이 고려로 돌아온 뒤에 태고(太古), 나옹(懶翁)이 임제(臨濟)선종을 오해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한국특유의 조계종의 작법을 배반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고유의 종풍(宗風)으로 복귀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전등오송(傳燈悟頌)의 종풍을 살리고자 한 것이다.

---

內需司官員內官主之 “

33) 『燕山君日記』 卷56, 燕山君 10年 12月 9日(乙丑). “興天寺災 前歲興德寺災 與興天寺供在都城中 稱兩宗 未周歲皆災”

34) 장원규, 「조계종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고찰」, 『佛敎學報』1,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63, p.337

35) 上揭書, p. 339.

이러한 상종의 사상은 흥천사의 조계종 수사찰로서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선종의 종규작법(宗規作法)은 중국임제(中國臨濟)의 모방을 지양하고, 그 고유의 법식에 복귀하였다. 뒤에 선교양종이 통합하고 선교겸수(禪教兼修)하게 되어서 사찰의 의식작법에 선종·화엄·밀교·염불·법상등의 각 종지와 법식이 혼합되어 오늘날 한국불교의 종규작법(宗規作法)이 되어 있으나, 선이 최우선이 된 것은 이때에 제정된 흥천사작법이 대부분 전승된 것이다.<sup>36)</sup> 이러한 상종의 보조국사(普照國師)의 유제(遺制)를 받들어 행할 것과 승려들이 아침·저녁으로 분수(焚修)할 것을 지정한 부분은 조계종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종이후 세종 때 활동하던 혜각존자 신미(信眉, 1405?~1480?)대사<sup>37)</sup>가 흥천사에서 한글창제를 위한 작업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신미대사는 동생인 유학자이자 승불을 주장한 김수온(金守溫)의 형으로 본명이 수성(守省), 본관은 영산(永山)이다. 처음 범주사에서 출가하여 수미(守眉)와 함께 대장경과 율을 배웠다. 김수온은 집현전의 학사로서 한글창제에 공을 세웠는데 이러한 김수온의 활동 뒤에 신미대사가 관련되어 있었다.

신미는 懶翁惠勤의 문손이었다. 조계종의 사상적 흐름 또한 신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미의 사상은 고려로부터 이어지는 선종을 계승하고 있었으며 흥천사에 당연히 주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상종이후 이어지는 조계종의 선풍은 신미를 중심으로 이어져 갔을 것이다. 신미는 세종의 존경을 받아 혜각국사의 칭호를 받았으므로 세종시대에 있었던 불교계 탄압의 여파를 피하여 선풍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조계종의 선풍은 당연히 조계종 수사찰(首寺刹)이었던 흥천사에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전기의 조계종 법맥은 흥천사에 남아있게 된다.

行乎는 태종과 관련이 깊은 원주 覺林寺와 고양 大慈庵의 주지를 한 후 지리산 함양의 金臺寺와 安國寺와 천관산 修淨寺를 중창하였고, 특히 천태종의 본산이라고 할 白蓮寺를 중창하였다. 행호(行乎)는 1420년(세종 12) 7월부터 1436년(세종 18)까지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지원을 받아 백련사의 중창을 시작하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마치 백련결사 당시 지방의 향리층이 주도하여 운동에 참여한 것과 그 분위기가 비슷하였고, 불전과 승사는 태평시대의 옛 모습을 거의 다 되찾았다고 한다.<sup>38)</sup> 백련사는 주지하다시피 나옹 해근의 조계 가풍을 따르는 사찰이다. 이러한 선종사찰 중창 불사를 행호가 주관하였다는 것은 천태종의 지도자 이기는 하지만 조

36) 같은 논문, p. 338

37) 信眉스님에 대한 연구는 이호영, 「僧 信眉에 대하여」, 『사학지』 10, 단국대사학과, 1976년; 황인규, 조선전기 불교계의 고승과 목우자 선풍, 『보조사상』 21집, 종범 「조선중기의 삼화상 선풍」 『중앙승가대학논문집』 5 1996. 등의 자료들이 있다.

38) 황인규, 「조선초 天台宗 高僧 行乎와 불교계」, 『韓國佛敎學』 第 三十五 輯, p. 220.

계종과도 깊은 연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홍천사와 연관되어있는 인물로는 행호를 꼽을 수 있다. 행호는 세종에 의해 ‘판천태종사천태영수도대선사(判天台宗師天台領袖都大禪師)’라는 승계를 받고 1438년(세종 20) 7월 18일 선종의 총본산인 도회소 홍천사의 주지를 하였다. 그러므로 스님은 천태종과 조계종을 포함한 선종을 주도하는 위치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sup>39)</sup>

그는 이러한 여세를 몰아 세종 20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선종의 총본산인 都會所인 興天社의 주지를 하였다. 당시 그의 법문을 듣고 한 해에 수 만명이 지지를 받아 승려가 되었다고 한다.<sup>40)</sup> 이 무렵 그의 법계는 도대선사(都大禪師)였는데, 선종의 법계는 대선사가 가장 높지만 판사(判事)를 맡게 되면 도대선사라 불렸다.<sup>41)</sup>

이 부분은 행호의 천태종 이력과 비교하면 의문점이 있다. 천태종 최고의 수장인 행호를 조선 불교를 대표하는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점은 행호의 위대성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그의 행적에서 보이는 점은 천태종과 선종의 결합의 일면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당시 유생들은 신미가 행호의 무리로 규정하려 하였으나 연관만 보인다.<sup>42)</sup>

#### IV. 맺음말

조계종의 본사라는 위상에 걸맞게 홍천사에는 太祖의 아버지인 桓祖의 초상을 모신 啓聖殿이 설치되었으며, 부처의 頭骨舍利와 대장경, 보물, 태조의 유물을 안치한 사리전이 건립되었다. 당대 名工이었던 金師幸과 金溪 등에 의해 건축된 홍천사와 사리전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장안의 명소가 된 홍천사는 조선의 대표성을 갖는 공식사찰로서 사신들의 宿所, 慰冥, 禮佛 등의 접대기능을 가진 外交의 무대로서의 役割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태조의 死後, 정릉이 도성 밖 沙乙閑으로 천장된 뒤에도 홍천사는 도성 내에 남아 핵심 사찰로서의 위상을 지켜 나갔다.

39) 황인규, 「麗末鮮初 天台宗僧의 動向」, 『天台學研究』제 11집, pp.814~818.

40) 『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 4월, 18일 을미조.

41) 문명대·조수연, 「고려 관경변상도의 계승과 1435년 지은사장 관경변상도의 연구」, 『강좌미술사』 38(사.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2.6) 이 논문에 기재된 관경변상도 화기에 “前判天台宗大宗師行乎”라 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42) 황인규, 「조선초 天台宗 高僧 行乎와 불교계」, 『韓國佛敎學』第 三十五 輯, p. 220.

강력한 억불책을 시행하였던 태종·세종대에 사찰과 불교종파를 축소·통합 하는 과정에서도 흥천사는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신종도회소로 지정되어 모든 宗務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하게 된다. 도회소의 운영과정에서도 僧科試驗의 주관, 住持推薦, 末寺管理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교종보다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국가의 통제와 보호 아래 교단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제도권 내에서 불교의 위상을 보존하고 승려의 권익을 옹호하여 불교교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불교계의 견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불교의 명맥을 회복·유지시키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하였다.

지리적으로 도성 내 왕궁 옆에 자리한 흥천사에서는 국왕과 왕실의 안녕과 國利民福을 기원하는 왕실 불사나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소재도량(消災道場)의 성격을 띄는 불교의례가 빈번하게 실행되었다.

당초 흥천사 조성의 명분이 신덕왕후의 능침사찰이었던 만큼 왕실의 死後 儀禮와 관련한 喪·祭禮가 거행되었으며 救病 佛寺, 祝壽齋 등이 문종 대까지 총 22 회에 걸쳐 행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흥천사에서 행해지던 왕실 불사는 불교 부흥을 우려하는 유신들의 경계대상이 되어 문종 이후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흥천사의 역할은 이러한 역할뿐 아니라 조계종의 수사찰로서 조계선종을 계승했으며, 상충, 신미 등의 승려를 통하여 조계선종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상적 역할은 조계종 수사찰로서의 행정적 기능적 부분을 넘어 조선불교에서 선종유지 및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호와 같은 천태종계를 아우르면서 사격을 높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흥천사는 조선전기 왕실과 불교와의 관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

### 주제어(Key Words)

흥천사(Heungcheonsa), 도회소(Do-Hyoe place(都會所)), 행호(Hang-Ho(行乎)), 신미(Sinmi), 선종(Sunjong)

## 홍천사의 역사와 사상

문 무 왕

홍천사는 조계종의 본사라는 위상에 걸맞게 홍천사에는太祖의 아버지인 桓祖의 초상을 모신 啓聖殿이 설치되었으며, 부처의 頭骨舍利와 대장경, 보물, 태조의 유물을 안치한 사리전이 건립되었다.

홍천사와 사리전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장안의 명소가 된 홍천사는 조선의 대표성을 갖는 공식사찰로서 사신들의 宿所, 慰冥, 禮佛 등의 접대기능을 가진 外交的 무대로서의 役割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태조의 死後, 정릉이 도성 밖 沙乙閑으로 천장 된 뒤에도 홍천사는 도성 내에 남아 핵심 사찰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갔다.

강력한 억불책을 시행하였던 태종·세종대에 사찰과 불교종파를 축소·통합 하는 과정에서도 홍천사는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선종도회소로 지정되어 모든 宗務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하게 된다. 도회소의 운영과정에서도 僧科試驗의 주관, 住持推薦, 末寺管理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교종보다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국가의 통제와 보호 아래 교단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제도권 내에서 불교의 위상을 보존하고 승려의 권익을 옹호하여 불교교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불교계의 견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불교의 명맥을 회복·유지시키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하였다.

지리적으로 도성 내 왕궁 옆에 자리한 홍천사에서는 국왕과 왕실의 안녕과 國利民福을 기원하는 왕실 불사나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소재도량(消災道場)의 성격을 띄는 불교의례가 빈번하게 실행되었다.

당초 홍천사 조성의 명분이 신덕왕후의 능침사찰이었던 만큼 왕실의 死後 儀禮와 관련한 喪·祭禮가 거행되었다.

홍천사는 조계종의 수사찰로서 조계선종을 계승했으며, 상충, 신미 등의 승려를 통하여 조계선종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상적 역할은 조계종 수사찰로서의 행정적 기능적 부분을 넘어 조선불교에서 선종유지 및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호와 같은 천태종계를 아우르면서 사격을 높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홍천사는 조선전기 왕실과 불교와의 관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 History and Thoughts of Heungcheonsa

Mun Mu-wang

In Heungcheonsa, corresponding to the status of the main temple of the Jogye Order, there were Gyeseongjeon in which a portrait of Hwanjo, the father of Taejo was enshrined, and the sarira edifice that enshrined the head skull sarira of Buddha, the Tripitaka, treasures, and the remains of Taejo.

Heungcheonsa and the sarira edifice are believed to have been splendid and magnificent buildings with an enormous scale. As such, Heungcheonsa became the official temple of Joseon and served as a diplomatic stage with hospitality functions such as envoys' quarters, Wimyeong, and worshipping ceremony, etc. Also, after Taejo's death, after Jeongreung was moved out of the city to Saeulhan, Heungcheonsa remained in the city to maintain its status as a key temple.

Heungcheonsa was not only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reducing/integrating Buddhist temples and Buddhist sects at Taejong and Sejong era, which had a strong anti-Buddhism policy but also it was exceptionally designated as a Zen Do-Hyoe place(都會所), and served as an agency for all order official duties. During the operation of Do-Hyoe place(都會所), it wa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monk examinations, acknowledgment of Juji and management of subordinate temples. It can be seen that it established a denomination management system under the control and protection of the state, with an edge over the Gyojong order. In addition, while preserving the status of Buddhism in the national institutional sphere and advocating the interests of monks, and incorporating Buddhist views into policy,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storing and maintaining Buddhism.

In Heungcheonsa, located geographically next to the royal palace in the city, the royal temple services wishing the well-being of the king and the royal family, the national interests and the happiness of the people, or the Sojaedoryang (Buddhist ritual to pray for blessings and prevent diseases and Buddhist rituals that characterize natural disasters) were frequently practiced.



As the origin of Heungcheonsa was originally the Queen Shindeok's tomb management temple, there were ceremonies/rituals related to royal postmortal rites.

Heungcheonsa inherited Jogye Zen as the head temple of the Jogye Order, and monks such as Sangchong and Shinmi seem to have played a role in promoting Jogye Zen. This ideological role seems to have contributed to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Zen in Joseon Buddhism beyond the administrative function as a Jogye Order head temple.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unofficial status was enhanced by putting together Cheontaejong denomination such as Hangho. It is said that Heungcheonsa is an important temple that shows the connection between early Joseon's royal family and Buddhism.

